



28만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순 천 시 의 회

SUNCHEON CITY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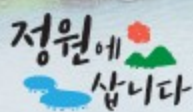
2023년 1분기 제38호

의정소식

The Suncheon City Council News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4. 1. ~ 10. 31. (7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 + 순천만습지 + 도심 일원



물 위의 정원



C O N T E N T S

02 인사말

04 의회소식

06 회기별 처리 안건

- 의원 발의 안건
- 그 밖의 처리 안건

10 주요 의정활동

- 대정부 건의
- 의원 자유발언

26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34 특별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37 의회갤러리

43 순천뉴스

47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48 순천시의회 안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7개월의 대장정,
시민과 함께
달려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회입니다.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인지 '봄'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하고 희망찬 봄의 기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의회는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제26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023년도 업무보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현안과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경전선 노선 재

검토 소식으로 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들쭉였습니다.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순천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생태수도 순천의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늘 순천시의회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의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에 순천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23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고민과 걱정은 덜어주고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는 순천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오는 4월 1일, 순천에서 10년 만에 국제정원박람회가 다시 한번 개최됩니다. 7개월간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과 랍사르습지를 품고 있는 순천만습지, 그리고 순천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을 새로 단장하였고 농경지와 공한지를 활용한 경관정원 등 눈을 땔 틈이 없는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가든스테이, 어싱길, 정원드림호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문화행사도 준비되었으며 국내 처음 시도되는 콘텐츠들이 가득합니다. 순천시는 생태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것입니다. 반드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정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 순천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듣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칙과 소신을 갖고 28만 순천시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제38호 의정소식지」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순천시의회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의회 의장 정명희

NEWS

NEWS 01

순천시의회,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 참석차 국회 방문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병회 의장을 비롯한 의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등 11명은 1월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 공공의료인력 안정적 확충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주최하고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전남의 의료현실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됐다.

정병회 의장은 “순천시의 미래와 시민의 절대적인 염원이 담긴 사안인 만큼, 정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인근 지자체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강형구 위원장, 신정란 부위원장 등 11명의 의원이 유치 관련 촉구 및 지원 활동은 물론, 각종 토론회 참석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NEWS 02

순천시의회,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등 위문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온정 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정병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1월 18일 사회복지관, 요양원, 군부대 등 13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19일까지 청소년 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4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순천시의회는 위문품 전달과 함께 입소자들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병회 의장은 “민생경제가 힘든 시기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순천시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에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꾸준히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NEWS 03

순천시의회, 진주시의회와 상호발전협력 협약 체결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희)는 2월 2일 진주시의회와 상호 발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보교류 활성화 및 공동 관심사항 협력 △의회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의회 합동교육 추진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의정지원 방안 모색 △상호 발전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교류 등이다.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은 “순천시의회와 진주시의회는 지난 자매결연 체결 이후 상호 교류를 통해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회 차원의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와 진주시의회는 지난 1998년 영·호남 화합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결연식을 맺은 이후, 25년간 지속적으로 우호 교류를 해오고 있다.

NEWS 04

순천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최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희)는 2월 3일 제26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4일까지 12일 동안 올해 첫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2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신설·조정부서 등 법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해 기존 예산보다 144억 원이 증액된 1조 4,07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횡재세 도입 등 대정부 정책요구에 강력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최미희 의원이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정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위촉되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시책추진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줄 것”과 “동료 의원들에게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57일 앞두고 있다”며 “10년 만에 개최되는 박람회가 새로운 정원도시로 탈바꿈해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원발의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5. ~ 12. 21.)



의회

발의자 우성원 의원 외 11명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형폐기물 무상 배출로 수수료 비용 부담 경감



의회

발의자 강형구 의원 외 8명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양동진 의원 외 8명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미세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순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최미희 의원 외 9명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장경원 의원 외 4명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순천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의회

발의자 정홍준 의원 외 3명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266회

임사회 (2023. 2. 3. ~ 2. 14.)



의회

발의자 이세은 의원 외 8명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행정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위수탁계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진정성립의 확인)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정광현 의원 외 7명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정이유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의회

발의자 오행숙 의원 외 11명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순천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의원발의



발의자 오 행 숙 의원 외 3명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인접한 시·군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순천시민의 농외소득 보장을 통한 순천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 서 선 란 의원 외 11명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정으로 경비실 지원가능함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는 경비원 지원항목을 삭제하고,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정비



발의자 최 병 배 의원 외 7명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헌혈사업 촉진 및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헌혈 권장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예우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단체 헌혈이 감소하고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헌혈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자 함



발의자 이 복 남 의원 외 7명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그 밖의 처리 안건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5. ~ 12. 21.)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본예산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순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내 국유지 매입)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3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남도농특산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원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원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제266회 임시회 (2023. 2. 3. ~ 2. 14.)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음브즈만) 위촉 동의안
-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만가든마켓(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대정부 건의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



김 태 훈 의원

조국·덕연동 / 문화경제위원회

꿀벌 대량 실종 피해에 따른 양봉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재해보험을 양봉농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양봉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함

[전 문]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월동 중인 꿀벌이 실종되면서 전체 양봉농가(2만 4,044가구) 중 17.8%인 4,295가구의 벌통(232만군 중 40만군)에서 꿀벌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종된 꿀벌은 한 통에 2만 마리씩, 약 60~78억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꿀벌이 대량으로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너무 좁아,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2.6%에 그치는 등 양봉 농가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낭종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꿀벌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같은 해충,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발생한 꿀벌 대량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꿀벌응애 방제 실패와 이상기온 등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결국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꿀벌응애 등 양봉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와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가입률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과 같다.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화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식량생산 증대와 생태계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는 다른 생물이나 인간의 기술로 대체가 어렵다.

꿀벌 실종으로 인한 나비효과는 이미 진행 중으로,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 과일·채소 등 생장에 타격을 줘서 식량난을 야기할 수 있고 가격 또한 치솟게 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약 70%가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하며, 우리나라의 농작물 중 71종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총 25조원의 생산액 중 약 6조원에 이르는 중요 산업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양봉산업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만큼 꿀벌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라.

하나, 정부는 가축재해보험에 ‘이상기온으로 꿀벌 피해’, ‘질병 특별약관’ 추가 등 양봉농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꿀벌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양봉직불제를 도입하라.

2022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전남 호국원 설치 촉구안



이 영 란 의원
왕조2동 / 행정자치위원회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에만 호국원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 고향에서 안장되지 못하고 타지에서 잠들어야 했던 유공자들과 보훈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전남 호국원 설치를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함.

[전 문]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라남도에만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현재 호국원은 광역자치단체 도 8곳 중 전라남도과 강원도를 제외한 6곳에 있다. 이마저도, 강원도의 경우 2018년부터 연천호국원 설립 사업이 시작되어 사실상 호국원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뿐인 상황이다.

전라남도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19만3천7백여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두 번째로 인명피해가 컸던 강원도(13만7백여명)보다 약 6만명이 더 많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전남인데, 국가로부터 외면받는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에 계신 보훈대상자들께서 사망하는 경우 전북 임실호국원 등 전부 타 시도에 안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고 자란 고향에서 안장되지 못하고 타지에 잠들어야 했던 유공자들과 보훈 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남 보훈대상자들이 편히 안장될 수 있도록 전남 호국원 설치를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남도만 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전남 호국원 설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국가보훈청은 고향에서 안장되지 못하고 타지에서 잠들어야 했던 유공자들과 보훈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보훈처장의 전남 호국원 설치를 즉시 추진하라.

2022년 11월 3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



김미연 의원

조국·덕연동 / 문화경제위원회

전례없는 속도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은 도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시중은행은
'예대마진'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음.
민생경제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때로,
금융당국에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전 문]

지난 11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 한국 기준금리가 3.25%로 올라온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고 전세 대출 금리도 최고 7% 대까지 올랐다. 값아야 할 돈이 두 배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서민들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가 오르면서 '영끌'로 집을 산 서민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허리가 더욱 휘 전망이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는 은행부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실물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크다.

금리인상이 서민의 삶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금리가 올랐던 지난 3분기 동안 무려 13조854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4대 금융지주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보다 더디기 때문에 천문학적 이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고금리 시대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절규 앞에서 금융지주들은 요지부동이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자발적으로 대출이자 인상 최소화로 고통을 나누고, 채무조정에도 적극 나섰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리차이와 산정근거 공개 방안을 추진중이나 '은행의 영업자유성'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은 상업성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면서도 보통의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역할도 맡고 있다.

은행이 부실해지기라도 하면 금융 시스템 복원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민간 은행이 벌이는 이자 장사라도 공공성을 벗어나 이뤄질 수는 없다는 뜻이며, 금융시장이 정부의 각별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경제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할 때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게 다음과 같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이자부담을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금융지주의 수익 일부를 금융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최 미 희 의원

왕조1동 / 문화경제위원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 에너지 기업들은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순천시는 정유업계·금융업계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보편적 에너지 지원 정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과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함.

[전 문]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맞이한 국민들은 고통의 계절을 나고 있다. 서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치 권력이 서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혹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반발만 키우는 꼴이 되었다. 다행히 순천시는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농업용 면세유 및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세우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민생 파탄이 단순히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덮친 상황에서 적극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

순천시는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물가 폭탄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횡재세 도입 등 대정부 정책요구에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전기료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은 믿기지 않는 금액에 놀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더욱 압당한 심정이다.

보일러에 사용되는 등유는 2022년 12월 기준 1L당 1,550원으로 1년 전 1,100원에 비해 30%나 높고, 2년 전 818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등하였다. 보일러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촌의 어르신들은 영하권 날씨에도 보일러 온도를 줄여 냉골에서 생활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는 제곱미터당 514원으로 1년 사이 54%나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38.4%, 열 요금은 37.8% 인상되었으며, 이번 겨울 강력한 한파로 인해 도시가스 사용량이 1년 전 대비 11.5% 증가하여 실질 인상폭은 더 클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 대비 16% 올라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그대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민에게 닥쳐온 난방비 폭탄은 에너지 기업에게는 더없는 '황재'였다. 정유 4사는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4조 6,822억원, GS칼텍스 4조 309억원, 에쓰오일 3조 5,656억원, 현대오일뱅크 2조 7,770억원 등 3분기까지 평균 누계 영업이익이 이미 2~4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실적까지 합하면 평균 3~5조원의 영업이익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6.5% 늘어난 5,226억으로 추정되어, 연간영업이익은 2조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삼천리·서울가스 등 국내 주요 도시가스 기업의 주가는 급등하여 1년 사이 2~5배까지 뛰었다. 가스공사의 적자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황재세는 경제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 잡는 것이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책이다. 이미 EU와 미국에서 도입·추진되고 있으며 몇몇 정당들도 황재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국회에서 과감히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황재세를 거부한다면 서민 고통을 대가로 대기업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들의 민생대책이 얼마나 진정성 없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순천시도 정유업계·금융계에 대한 황재세 도입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 에너지 지원정책 시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순천시는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급한 만큼, 중앙정부 정책 도입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시민에게 따스한 온기를 보내는 것이 순천시의 책무이다.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순천시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부터 보편적 에너지 재난지원금 정책이 도입되도록 앞장설 것이며, 나아가 황재세를 도입하여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김 태 훈 의원

조국·덕연동 / 문화경제위원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으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함.

[전 문]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약 30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예산 규모와 자치사무 영역 속에서 주민의 총량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간, 독립된 법률이 없어 '의회다운 의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 법적 제한과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 전출입, 교육·복무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은 보다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의회 직원들은 집행부와 같이 순환보직으로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해

서 근무함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관도 두게 되면서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에 남아 있어 확보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인사권은 현재 의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보는 가능하지만 조직구성권이 없어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조직개편 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 제정이 요구됩니다.

국회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류되며 예산편성권을 갖지만 순천시의회는 순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본연의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 강화 등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과 함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이 가능하도록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정 광 현 의원

향·매곡·삼산·저전·중앙동
문화경제위원회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전세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실질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 불평등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변하는 시장 동향 등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함.

[전 문]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발달한 전세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규모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 금액을 기준으로 파악해 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1만 2713건, 피해 금액은 2조 6541억원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2030세대가 68.8%를 차지했고 40대는 11.3%, 50대는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위 변제한 금액은 2,675억원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56.84%인 1,520억원은 20대와 30대가 빌린 금액이다.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까지만 해도 40% 초반대를 유지했었으나 2021년에 급증했다.

문제는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초래된 이른바 '강통전세'로 인해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순천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정주도시의 여건은 물론,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임대방식이지만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다. 전세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주택 전월세 만료 계약이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강통주택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 자기 자본없이 땅을 담보로 받아서 사업하는 구조 등을 꼽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한 '범 정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실질적인 '강통전세'방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전세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금리 시대와 고도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전세제도임을 인정하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전세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2030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독특한 제도인 만큼 비아파트 전세 거래가 등 수시로 변하는 시장 동향 등 세입자의 정보 불평등이 없도록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자유발언



“옛 삼산중 부지, 백년대계 세워야”

이 복 남 의원

향·매곡·삼산·저전·중앙동 / 도시건설위원회

· 중흥건설, 순천 발전에 기여하는
대승적 결단 ‘촉구’

이복남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제265차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의 역사문화 향기가 서린 옛 삼산중학교 부지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삼산이수의 기운이 넘치는 옛 삼산중학교는 시민 정서와 향수, 5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미래세대의 배움터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삼산중학교 신대지구 이설에 따른 해당부지에 대한 명확한 쓰임새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적으로 그 부지에 아파트가 세워지느냐, 순천의 문화 역사적 향기를 담은 공공시설을 세워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할 때”라며 당초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였으나, 시민과 시민단체, 행정의 힘을 모아 그 자리에 조성한 ‘조례호수공원’이 신도심의 랜드마크가 된 것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흥건설에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옛 삼산중학교 부지를 온전하게 순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흥건설이 옛 삼산중 부지에까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공급과잉 돼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이곳에 아파트가 아닌 예술의 전당과 같은 문화 예술적인 향기가 뿌리내려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순천시는 중흥건설과 잘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순천시 위탁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최 미 희 의원

왕조1동 / 문화경제위원회

·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 해결해야



최미희 의원은 11월 25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잡월드 등 순천시 위탁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잡월드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사업을 민간업체에게 수탁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무시되고 효율성만 중시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순천만잡월드의 사례를 들며 중앙부처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용을 승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림잡스쿨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유지에 대해 협약서에 명시하고 서약서를 받았어야 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순천만잡월드는 준교육기관으로 순천시민과 아이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면, 순천시가 위탁을 취소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 자유발언



“순천지역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체제로 전환해야”

장 경 순 의원

왕조1동 / 행정자치위원회

- 매년 중학교 배정때마다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학부모의 민원 반복
- 학생 선택권 확대·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 위해

장경순 의원은 2월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지역 단성중학교인 순천여중, 동산여중, 이수중학교의 남녀공학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현재 순천지역의 단성중학교는 3개교이며, 이 중 순천여중, 동산여중은 여학생만, 이수중은 남학생만 갈 수 있어, 근거리 중학교가 있음에도 단성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 원거리 남녀공학 학교를 지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성중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인근 남녀 공학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어 중학교 배정의 불균형이 심해 순천지역 중학교 배정 때마다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교육지원청은 이 3개의 단성중학교에 대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 목소리로 인해 전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과 성평등·성인지 감수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이라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대한 인사 및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최 미 희 의원

왕조1동 / 문화경제위원회

· 정부의 지침 따라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최미희 의원은 2월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근로자 채용공고문의 결격사유에는 불법노사 분류로 해고된 자를 써가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상시근로자를 2개월, 3개월, 7개월 쪼개기식 꿈수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업체 계약기간이 1년이면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도 1년간 고용을 승계하며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 10일에는 순천시와 조직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순천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자유 발언을 마쳤다.

의회운영위원회



정 홍 준

위원장



장 경 원

부위원장



이 향 기



김 태 훈



최 현 아



양 동 진



이 세 은



정 광 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홍준)에서는 제265회 제2차 정례회부터 제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고,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먼저,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3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변경된 월정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022. 10. 31.)에 맞춰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원외출장 조례」의 연임규정 및 단서조항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 등을 개정했다. 이어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순천시 일부 조직 명칭이 변동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구를 정비하고자 이에 맞춰 「순천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외 심사를 생략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원외출장규칙」을 개정했으며, 순천시 의회 수석전문위원제도 시행에 맞춰 의회운영 및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의 운영 실태와 의정활동 지원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했다.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올 한해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활동계획을 파악하여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 제26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영란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



박계수



유영갑



정홍준



장경순



유승현



장경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란)에서는 지난해 마지막 회기인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사업의 합목적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집행부에 민생현안과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직속부서,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읍면동 총 46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과 순천 북부 노인 복지타운 건립예정지 등 사업 현장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 결과, 각종 위원회 운영과 용역 관리 부실 등 총 150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고, 7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안건은 순천시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건, 동의안 1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사업의 적정성,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1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했다.



▲ 행정자치위원회&집행부 간담회



▲ 청소년수련원 내 국유지 매입현장



▲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현장

새해를 맞이하여 첫 회기일정인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 취약계층 지원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안건은 청령도 향상을 위한 「순천시 청령도 향상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사업의 적정성,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1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회기 마지막 날에는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회 및 이·통장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임명 시 분쟁 등 갈등 최소화 방안,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이후 발생 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



나안수



최미희



김미연



신정란



김태훈



이세은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진)에서는 제265회 2차 정례회 ~ 제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예산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했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순천시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현장 방문

먼저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합목적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며,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79건의 지적사항과 9건의 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부족한 행정 사항은 보완토록 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순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장방문은 순천만잡월드, 야시장 이전 대상지, 청춘창고, 신화새마을사업 대상지,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등 문화경제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5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2023년 첫 회기인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미래산업국(5개과), 문화관광국(7개과), 농업기술센터(5개과), 사업소(2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며 올 한해 추진될 순천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 순천만잡월드 현장 방문



▲ 야시장 이전 대상지 현장 방문



▲ 청춘창고 현장 방문

도시건설위원회



최병배
위원장



양동진
부위원장



강형구



이복남



오행숙



우성원



이항기



서선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에서는 제265회 2차 정례회부터 제266회 임시회(2022. 11. 1. ~ 2023. 2. 28.)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업무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제265회 2차 정례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받았다. 이외에도 우성원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제·개정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6건, 보류 1건의 심사결과가 나왔고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과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8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권고하였고 8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다. 또한, 현안사업 현장(CCTV통합관제센터 등 7개소)를 방문하여 시민 불편사항 등이 없도록 지도·점검 하였다.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도시디자인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의 2023년 주요 업무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일반안건은 이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5건 중 2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부결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 개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자원순환센터 화재 현장 방문



▲ 순천자연휴양림 현지 확인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지 확인



▲ 와온항 어촌 뉴딜 300사업 현지 확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연)에서는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4건, 92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제출했다.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순천 미래를 위한 복지정책 추진, 스마트 디지털 미래산업 육성,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으로의 도약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총 56건, 88억745만2천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제출했다.

제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및 신설·조정부서 등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 등 상반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예산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오행숙)는 박람회를 2개월 가량 앞두고,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설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순천역을 방문하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람회 개막에 따른 박람회 사전 현장점검과 타 지자체 홍보활동에 대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희)는 제266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평화공원 인근 기 현장점검에 따른 버스 노선·정류장·도로 표지판 명칭 변경 등 관련 부서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행정과로부터 2022년 여·순 10·19 사건 관련 실적 결과를 보고 받고, 2023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날 특별위원회는 전남동부지역 여순 관련 협의회 간담회 개최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형구)는 지난 1월 13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에 국가적 과제임을 표명하고 전라남도(순천) 내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전선(순천~광주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경전선(순천~광주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항기)는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로과로부터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순천시의 발전 방향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요구했으며, 이를 위한 특위 차원의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의회갤러리

QR코드를 통해 더 많은
사진들을 확인해 보세요



2022. 11. 8. 전남농아인체육대회



2022. 11. 19. 아시아버드페어



2022. 11. 19. 뷰티페스타



2022. 12. 12. 순천장애인보호장 송년의 밤



2022. 12. 13. 순천시사회복지인의 밤



2022. 12. 16. YMCA 송년의 밤



2022. 12. 27. 여순항쟁 유족 삶 이야기 예술 교육 시화 전시회



2022. 12. 27. 순천체육인의 밤



2023. 1. 16. 전남지역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2023. 1. 18. 설 명절 복지시설 위문



2023. 1. 25. 전남의과대학 유치 명절 전 홍보활동



2023. 1. 26. 2023년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2023. 1. 26. 정원박람회 건배주 시음회



2023. 2. 3. 진주시의회-순천시의회 상호발전협력 MOU 체결



2023. 2. 5. 낙안읍성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2023. 2. 8. 순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2023. 2. 21. 여성의원-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정담회



2023. 2. 21.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초청 대담

SUNCHEON NEWS

순식간에 순천이 좋아질 거예요
천가지 즐거움이 있는 특별한 곳,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놀러오세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시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이 시대의 화두인 '탄소 제로' 실천과 관람객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국내 처음 시도되는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함을 담은 박람회장은 도심,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의 3개 권역으로 구성되며 범위는 무려 193ha에 달한다.

1. 도심권역

그린아일랜드

아스팔트 도로를 푸른 잔디길로 탈바꿈!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박람회의 상징 공간



오천그린광장

홍수에 대비한 저류지를 정원으로 바꾼 첫 사례
 심과 사색, 커뮤니티, 문화가 있는 공간



경관정원

박람회장 주변의 농경지와 공한지를
 활용한 100만 평의 대규모 경관정원



물위의 정원

플로팅 공법으로 물 위로 확장된 정원
 3월 31일 개막식이 개최될 공간



순천뉴스

국가정원벚길&정원드림호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동천이 벚길이 된다!
순천역 인근 선착장에서 '정원드림호'를
타면 15분 만에 국가정원 도착



2. 국가정원권역

가든스테이 순천 '실랑게'

60만평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룻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고급만찬과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개울길광장

왕버들 사이로 흐르는 개울길에서
풍당풍당 발을 담그고 넓고 확트인 잔디밭에서
온전한 심을 얻을 수 있는 정원



키즈가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원



노을정원

"애기궁덩이"라 불리는 두 봉우리 사이
순천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



SUNCHEON NEWS

3. 순천만습지권역

맨발로 걷는 '어싱길'

세계적인 건강 치유법인 어싱(맨발걷기)을
통해 온몸으로 느끼는 순천의 생태



순천만 어싱길 지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
<https://scbay.suncheon.go.kr/expo>

국가정원식물원&시크릿가든

순천의 삼산이수를 담은 입체 식물전시공간인
국가정원식물원, 방하정원, 햇빛정원, 식물극장 등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시크릿가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실천운동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시는 10년 전에 비해 차량 등록대수가 10만대에서 16만대로 증가해 박람회 기간 동안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 2부제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2부제는 홀수날에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을, 짝수날에는 차량번호가 짝수인 차량을 운행하는 제도이다. 시는 차량 2부제의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순천시청 공무원과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에 참여하며 공공기관·유관기관들의 참여 또한 독려했다.

정원박람회기간(4. 1. ~ 10. 31.)중에는 차량 2부제에 대한 시민홍보와 실천운동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749-8000' 콜센터로 물어보세요!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는 박람회 사전문의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해 10월 31일까지 콜센터(061-749-8000)를 운영한다. 상담사 6명으로 구성된 전담 콜센터는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실시간 안내를 제공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돕는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무 없이 운영되며 입장권 구매, 공연, 행사 정보는 물론 숙박, 교통, 기타 관광 등 박람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근 교통량·주차장 현황, 소방 및 경찰 등 관계기관 안전지원 등 행사 전반의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01

2023년 문화누리 카드 지원 및 발급 안내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12.31. 이전 출생자)
- ❑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 **지원금액** 1인당 연 11만원
- ❑ **발급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02

물 절약 시, 수도요금 감면 안내

- ❑ **기 간** 2023. 4월(2.20.~3.19. 사용분) 부과분부터
- ❑ **대 상**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사용량 절감 수용가 (단, 옥내누수, 급수 중지 수용가는 제외)
- ❑ **내 용** 20% 이상 절감 시, 상수도 요금 13% 감면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적용)



0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단독 및 다가구, 오피스텔, 아파트·연립·다세대, 기숙사·고시원 등)
- ❑ **계도기간** 2021. 6. 1. ~ 2023. 5. 31.(2년간)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미신고한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3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 **신고방법**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방문(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문 의**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





순천시의회 안내

▶ 의회 방청 안내

순천시 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시의회는 방문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시설견학, 의회안내, 의회방청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 방청안내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61)749-4951

▶ 의회에 바란다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는 시민들의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참여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순천시의회"를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 <http://sccouncil.go.kr>을 직접 입력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클릭 → 본인인증 후 글쓰기

의회 민원 상담 창구

전화 061)749-5987 FAX 061)749-4773

▶ 의회 전화번호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운영 위원장실	행정자치 위원장실	문화경제 위원장실	도시건설 위원장실
749-4900	749-5972	749-5974	749-5975	749-5976	749-5977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	의회사무국 FAX
749-5980	749-5982	749-4950	749-4957	749-4963	749-4773

▶ 순천시의회 SNS



페이스북 @순천시의회(suncheoncouncil)



유튜브 @순천시의회(sccouncil)



블로그 @순천시의회(061sccouncil)

▶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 위 원 장 정흥준
- 부위원장 장승태
- 위 원 김성홍 김성재 장경원
최현아 정광현 양동진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3

2023.4.1. ~ 10.31.

- 발행일 : 2023. 3.
- 발행인 : 순천시의회 의장
- 전 화 : 061)749-4965
- F A X : 061)749-4773